

추석 앞둔 전통시장 활기...“더 살아났으면”

르포 광주 양동시장 가보니

손님 발걸음 이어져...상인들 얼굴도 ‘활짝’ 코로나19 전 매출 80% 수준...“회복 기대”

“흥이고 굴비고 때깔 좋고 실한 놈들이 가득 있음께 싸목싸목 둘러보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명절 대목에도 상인들 한숨 쉬는 소리만 들려왔던 전통시장이 모처럼 추석을 맞아 활기를 되찾았다. 많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손님들 발걸음에 아재와 생선을 다듬는 상인들의 손놀림은 멈출새가 없었다.

추석을 2주 앞둔 6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망째 가득 싸인 양파를 비롯해 바구니에 담긴 당근, 고추, 파프리카 등 각종 채소가 눈에 들어왔다.

시장 내부는 고기, 생선, 전갈 등 제수용품 마련하기 위해 찾은 손님들로

간만에 북적였다. 아직 예년처럼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는 아니지만, 상인들은 “이게 어디냐”며 손님 발걸음을 붙잡는 데 여념이 없었다.

채소를 취급하는 송모씨(61)는 “보통 명절이 다가오면 한 달도 훨씬 전부터 손님이 바글바글하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먼 나라 이야기”라며 “그래도 꾸준히 시장을 찾는 손님들 덕에 사장이 조금 나아졌다”고 말했다.

“아따, 바지락 몇 개만 더 넣어줘요.” 코로나 이후 좀처럼 들을 수 없었던 흥정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위대, 안 그래도 싸게 파는데 더 달라고 하네. 할 수 없게 가져가.” 덤을 얻은 손님도, 못 이기는 척 검은색 비닐봉



추석을 2주 앞둔 6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지에 바지락 몇 알을 더 넣어주는 상인도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해산물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씨(76)는 “코로나 이후 명절 중에서는 그래도 올해 추석이 가장 나은 편”이라며 “매출도 절반 이상 끌어올렸다.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손님도 조금씩 늘고 있어 한시름 났다”고 기뻐했다.

고소한 냄새가 풍겨오는 전집에서는 제사상에 올릴 전을 사려는 주부들이 쉼을 치르고 있었다. 명절에 빠질 수 없는 별미 홍어의 비릿하고 알싸한 향도 은은하게 퍼지며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홍어를 판매하는 이모씨(69)는 “손님도 매출도 늘고는 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다”면서 “마트보다싼

물건도 많으니 손님들이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아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주부 김명희씨(53)는 “아재는 물론 고기, 생선 등 작년보다 안 오른 물건이 없다”면서 “배를 한 상자 샀는데, 체감상 가격이 거의 두 배 이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3일까지 8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대표 우수제품을 세트 제작해 실시간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했다. 추석 전까지 추가로 8개 시장, 추석 후에는 12개 시장을 추가 공모해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예정이며 품목별로 10%에서 최대 40%까지 할인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홈코노미 확산 등으로 온라인 쇼핑이 용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거래 상품의 다양화와 매출 증대가 실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라이브 커머스의 확대와 공공배달앱을 통한 전통시장 장보기 등 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선우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	21~27	순천	21~30	광양	21~29
나주	21~27	목포	23~27	여수	23~28

일출 06:09 일몰 18:51
월출 05:58 월몰 19:20

장성	21~28	흑산도	24~27
담양	20~27	구례	20~28
화순	21~27	곡성	19~28
영광	21~27	완도	24~28
함평	21~27	강진	22~29
무안	22~27	장흥	22~28
영암	22~28	해남	23~28
진도	23~28	고흥	22~29
신안	22~26	보성	20~28

목포	만조 02:27 14:30	여수	만조 09:15 21:41
	간조 07:45 19:50		간조 03:08 15:15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131

독거노인 자녀 사망보험금 ‘꿀꺽’ 50대 요양보호사 징역 1년6개월

자신이 돌보던 독거노인의 자녀 사망 보험금을 가로챈 50대 요양보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6·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12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 자신이 돌보던 독거노인 B씨(68)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자녀 사망 보험금 등 2

억1,099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생활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얼마나 살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요양보호 활동으로 월급 160만 원을 받았는데,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능력이었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최환준 기자



가을비 내리는 황룡강

가을비가 내린 6일 오후 장성군 황룡강 산책로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활짝 핀 수크령 사이로 걸어가고 있다.

/김성훈 기자

‘택시 들이받고 도주’ 만취 20대 운전자 검거

광주 도심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잇따라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검거됐다.

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전 1시 48분께 운양동 동운고가로 인근 교차로에서 20대 운전자 A씨가 운전한 승용차가 신호위반 사고를 냈다.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정상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총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A씨는 서구에서 만취해 곡에 운전하다 택시 운전기와 다툼을 벌였으며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이탈한 A씨는 또 다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환준 기자

고흥서 여관 화재...투숙객 1명 사망

고흥의 한 여관 객실에서 불이 나 투숙객 한 명이 사망했다.

6일 고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3분께 고흥군 고흥읍 한 여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초기 진화를 한 뒤 객실 안에서 불에 타 숨진 투숙객 윤모씨(42)를 발견했다.

윤씨는 이 여관에 6개월 이상 장기 투숙 중이었으며, 화재 당시 다른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방문이 안에서 잠겨 있던 점 등을 토대로 타살 혐의점은 낮은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전남취재본부=진중연 기자

광주·전남 오늘 최대 60mm 비

광주·전남지역 곳곳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7일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30~80mm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전남 내륙에도 10~60mm의 비가 오겠다.

비는 이날 정오께 서쪽부터 차차 그치겠다.

전남 해안에는 시속 30~45km(초속 9~13m)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서해남부 먼 바다에는 시속 35~60km(초속 10~16m)의 강한 바람과 함께 파도가 1.5~4m로 높게 일겠다.

무안·진도·신안(흑산면제외)·목포·영광·함평에는 강풍 예비 특보가 내려질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황해·조업하는 선박은 강한 바람에 대비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빈 기자

여수서 벌초하던 70대 말벌에 쏘여 숨겨

여수에서 추석을 맞아 벌초하던 70대가 말벌에 쏘여 숨겨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6일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6시 40분께 여수시 물산읍에서 벌초하던 A씨(70)가 말벌에 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때 A씨는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벌독에 의한 사망 시점은 벌 쏘인 후 1시간 이내인 정도로 치명적”이라며 “벌초할 때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중

전기종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10년 사용), 가정용 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 주행거리 100km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 주행거리 90km

안전필수 전복방지 (틸팅)기능
최대속도 60km / 주행거리 50km

에코 ev102	판매가격 833만원	무상보조금 303만원	도내생산보조금 48만원	본인부담금 482만원
----------	------------	-------------	--------------	-------------

나이스 3L	판매가격 650만원	무상보조금 330만원	도내생산보조금 48만원	본인부담금 272만원
--------	------------	-------------	--------------	-------------

나이스 1L	판매가격 462만원	무상보조금 330만원	도내생산보조금 48만원	본인부담금 132만원
--------	------------	-------------	--------------	-------------